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반려동물도 코로나 블루에 시달린다는 점이 밝혀졌다. 사진제공 | 핏뉴스

산책 줄어든 반려견 우울감 극복 필요해

코로나19·태풍 등으로 산책 감소 햇볕이 잘 드는 실내 활동으로 해소

직장인 서모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산책이 줄어들었다는 탓인지 반려견의 행동이 이상하다. 잠만 자고 별 의욕이 없어 보인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직장인 박모 씨도 “사람들이 예민해져 있는 상황에서 자국이 뵈기 싫어 반려견 산책을 자제시키고 있는데 반려견이 우울감을 느끼는 것 같다”고 털어놓았다.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우울, 일명 ‘코로나 블루’가 사람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

반려견 산책을 시키고 싶어도 코로나19 사태에 각종 태풍, 장마, 홍수 등 자연재해가 겹치면서 산책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려견들은 지나치게 잠을 많이 자거나 음식을 너무 조금 먹거나 몸을 지나치게 핏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고 있다.

반려견은 산책을 좋아한다. 반려견 산책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직장인인 반려인을 온종일 집에서 기다리는 반려견에게 산책은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사람보다 활동량이 많고 산책의 욕구가 큰 반려견의 활동을 제한할 경우 우울감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산책에 준하는 행동을 통해 반려견의 기분 전환이 필요하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4월 반려견을 위한 코로나 블루 예방법을 소개했다. 산책 등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 반려견은 에너지 사용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과체중을 예방하기 위해 사료 급여량을 줄이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간식을 급여하는 게 좋다. 햇볕이 잘 드는 실내 공간에서 활동을 시키고 환기를 통해 기분 전환을 시켜주는 것도 필요하다.

김호승 객원기자 inewsman@nate.com

반려동물 과도한 의인화 경계해야

우리 아이는 안물어요? 개는 사람이 아니에요!

반려인 1000만 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반려동물을 향한 관심이 날로 치솟고 있다. 반려동물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하며 같이 나이 들어가는 것을 행복해하는 반려인이 많다.

특히 반려동물을 “우리 아이”라고 부르며 지극 정성을 다하는 반려인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이 같은 문화를 생소해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방송인 타일러는 한국의 반려동물 문화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지난 7일 방송된 KBS2 ‘개는 훌륭하다’에서 “반려견을 사람처럼 대하더라. 우리 아기, 엄마 등 이런 표현이 정말 놀라웠다”고 말했다.

타일러는 미국에서 온 사람이다. 그는 “미국에서는 (이런 호칭이) 이상하게 여겨진다”면서 “이 사람 좀 특이한 것 같다”라고 생각할 것이다”라고 했다.

호칭을 아기, 아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찌 보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반려동물을 과도하게 의인화하여 인간과 같은 존재로 착각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반려동물을 교육하면서 반려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과도하게 처벌하는 경우가 있다. 따끔하게 혼을 내준다면 선을 넘는 처벌을 하면 반려동물은 크게 상처 입을 수도 있다.

반려동물의 심리나 행태에 대해 전혀 공부하지 않고 대책 없이 키우기부터 하는 경우도 많다. 반려동물 TV프로그램을 접하고 귀엽다는 이유만으로 덜컥 데려왔다가 싫증이 나자마자 버리는 경우도 흔하다. 육아에도 지식이 필요한데 반려동물을 ‘아기’라고 부르면서 정작 반려동물에 대한 기초 지식은 전혀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에 대해 공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반려동물에 대한 책 한 권이라도 읽으면 반려동물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반려동물이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에 반려동물에 대한 공부를 소홀히 한다.

반려동물은 인간이 아니다. 반려동물을 아무리 잘 교육해도 반려동물에게는 그들의 세계가 있고, 그 세계는 인간의 세계와 다르다. 반려동물이 보는 세계와 인간이 보는 세계가 같을 수 없다.

예컨대 목줄 문제도 의인화라는 지점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주제다. 일부 반려인들은 “우리 아이는 목줄 안아요”라며 반려견의 목줄을 풀고 다닌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개라도 타인에게 위험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반려인 자신을 물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목줄을 풀어놓고 다닌다. 타인에게 큰 위협이지만, 동물의 인화에 빠진 반려인은 타인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다.

한 반려동물 전문가는 “반려인 교육이 절실하다. 반려동물에 대해 배우고, 이를 인종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다면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승 객원기자 inewsman@nate.com

우리 아이라고 부르지만 기초 지식은 부족 사람과 착각...과도한 처벌·목줄 문제 발생 전문가 “반려인 교육·인증 분위기 필요해”



반려동물은 사랑스럽지만 분명히 사람과는 다르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의인화를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사진제공 | 핏뉴스

아이러브펫

스프링 2020년 9월 10일 목요일 13



대한수의사회가 ‘동물병원 내 진료 원칙’을 강조하며, 협회 회원들에게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제공 | 핏뉴스

“방문진료 중개는 교란행위 동물 진료는 동물병원에서”

대한수의사회, 동물병원 내 진료 원칙 강조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동물병원 내 진료 원칙을 강조했다. 최근 수의사의 방문진료를 제공·중개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출시하고 홍보하거나 동물병원에서 개별적으로 방문진료 서비스를 홍보하는 등의 동물의료체계 교란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수의사회는 일부 수의사들의 법 이해 미비 및 윤리의식 부족에 의한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방문진료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적절한 동물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회원들에게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수의사들은 동물진료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의사라는 인적 요건뿐만 아니라 적절한 시설을 구비한 동물병원이라는 물적 요건을 동시에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동물의 진료는 시설이 갖춰진 동물병원 내에서 해야 한다.

가축에 대한 출장진료와 같이 예외는 있으나, 일상적으로 방문진료를 하는 경우 응급상황 대응 미비로 의료사고 시 악화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적절한 의료폐기물 처리 등 위생관리가 어려워 공중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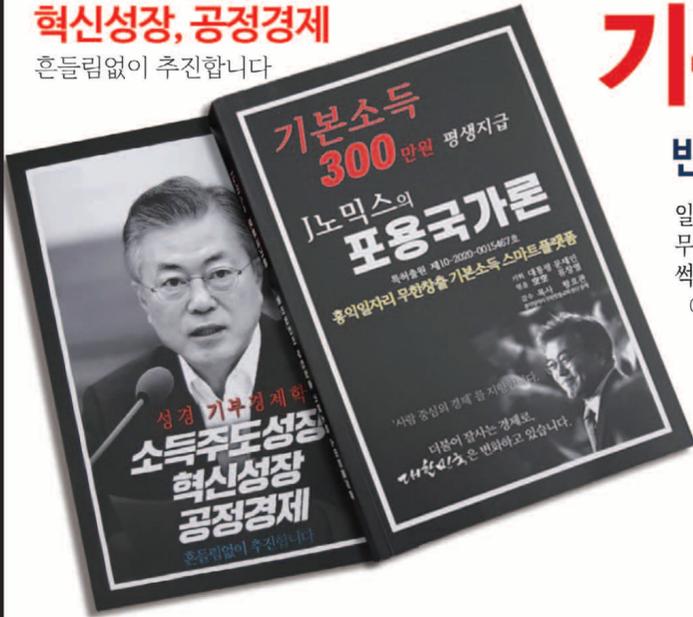
수의사법과 유사한 의료법도 응급환자의 진료 같은 경우 제외하고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이러한 동물병원 내 진료 원칙을 강조하며, 수의사가 일상화된 방문진료로 개설 동물병원에 대한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 동물진료업의 정지 및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중개 서비스를 통한 방문진료 및 특정 동물병원으로 진료를 연결하는 행위 등은 부당한 환자의 유인에 해당하여 면허 정지 등의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회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박원희 객원기자 24news@naver.com

‘자본공유앱’ 발명특허 등록 제10-2143479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흔들림없이 추진합니다



후손과 1030세대를 위한 인류의 유일한 단일회사 - 스마트플랫폼 하이우분투(주)

기본소득 300만원 평생지급

반려동물 (개, 고양이) 까지 기본소득 150만원 지급 (선착순/가구당 1마리씩)

일자리도 없는데 대학가기 위해 **수능은 왜 보나?** 무식한 교육부야! 등신 학부모야! 철밥통 관료들야! 책을 때려 써야 준비와 다름없는 정치인들야
이생망, 헬조선, 흠수저, 자살송을 퍼트리며 자살하는 - 1030세대 (39세까지) 알

환경과 사람 살리는 최고품 최저가 모든 재화 및 기본소득 300만원 이상 평생 무상증여, 투자 전혀 없이 단 한명의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고 전인류 반려동물 누구든 모두 선착순 자동차 우분투 기본소득 신 트네상스 코스모스 프로젝트

총의일자리 무한창출 기본소득 스마트플랫폼
 인류의 구세주
 21세기 제2의 석유
 K-biz, K-pay, K-platform
 성경기부경제학
 자본공유앱APP
 선착순 자동차레이기부 품앗이게

문의처

세계교회대혁신 "총의일자리 무한창출 교회 종교재단" 등극!!!

● 총재 황호관 목사 010-6249-5892 ● 비서실장 임순호 목사 010-5329-9097 ● 사무총장 윤병모 목사 010-5063-8831 ● 사무국장 강석만 목사 010-4277-0691
● 본부교회 정기성 목사 010-4688-3491

● 서울 백인즈 010-6462-6712 / 역삼 힐비 010-5647-5428 / 김석우 청국장 010-7653-5373 / 이주자 010-9339-8649 / 신비전 010-9220-4334 / 김명배 010-8290-8801 / 강영석 010-3274-5289
● 부산 김창주 010-9852-6452 / 백상석 010-7309-1000 / 민명숙 010-5118-5263 / 김한성 010-3315-1517 / 심정희 010-5644-2788 / 윤영기 010-4424-7161 / 추영만 010-4741-7008
● 조현교 010-7374-4111 / 서재우 010-8770-2935 ● 대전 김찬구 010-8029-0059 / 김유현 010-3742-5998 / 전담민 010-2391-8259 ● 대구 전영희 010-4946-4950
● 울산 지영원 010-8003-5323 / 최택수 010-4830-1810 ● 창원 이현배 010-3572-4616 / 이승현 010-5769-0532 ● 천안 김예덕 010-6258-3510 / 오명숙 010-8804-3424
● 인천 박유호 010-3227-0993 / 주안 홍원표 010-6717-1779 / 서동원 010-3489-4190 / 김효숙 010-8488-2999 ● 김포 정재호 010-6416-1888 ● 이천 허선석 010-4707-2659
● 안성희 010-5177-9479 ● 여주 정근영 010-8513-3833 ● 용인 김기영 010-6285-7653 ● 수원 황인드레아 010-3435-0158 / 박우영 010-5221-8119 / 황베드로 010-7610-9936
● 평강 고영철 010-5463-6952 ● 중국 송동욱 010-4280-4616 / 남미옥 010-6852-8897 ● 하위이 윤이나 010-8763-8742

하이우분투 (주)
Hiubuntu 1644-6733